

Daily Auto Check

2021. 10. 21 (Thu)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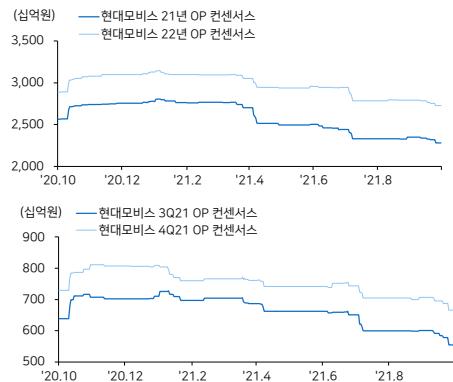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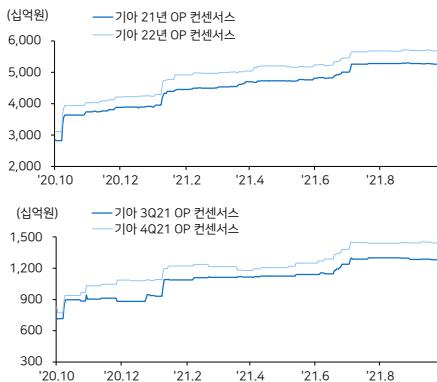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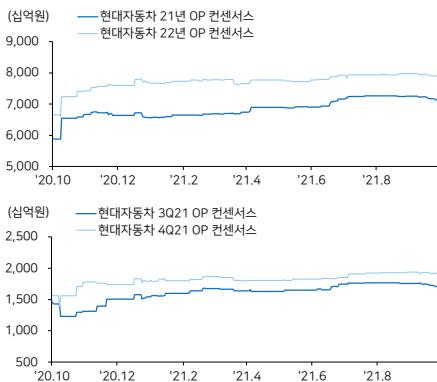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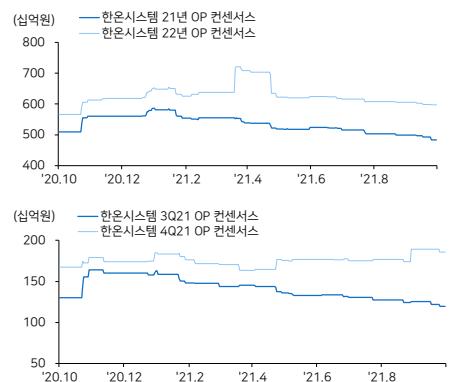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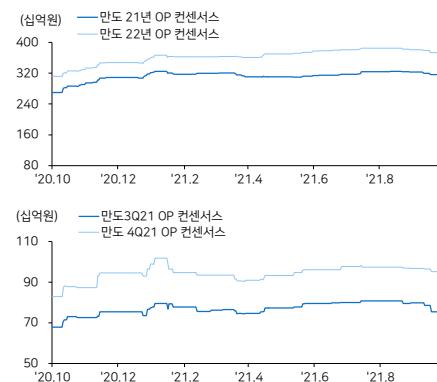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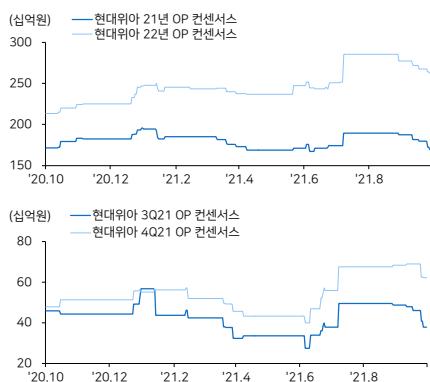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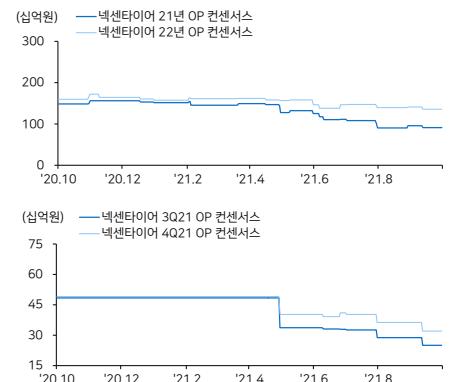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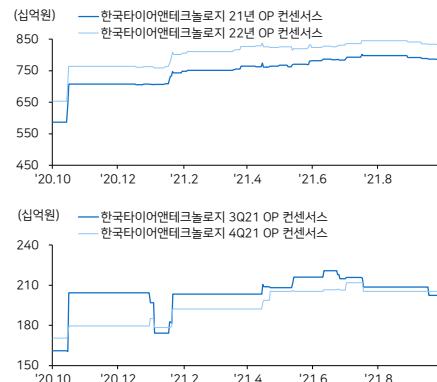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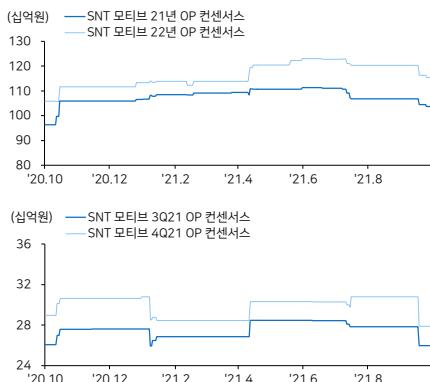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 호주 달린다…모서널, NSW주 시험운행 협약 (THE GURU)

현대자동차가 삼가프로와 미국에 이어 호주 로보택시(Robotaxi) 시장에 진출함. 이를 위해 현대차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서널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와 손잡고 시험주행에 나설 예정.
<https://bit.ly/3AVfjD>

현대차, 인도 축제 '다월리' 시즌 신차 할인 판매…연말 고객들이 (THE GURU)

현대자동차가 인도 전통 축제 다월리(Diwali) 기간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반도체 소티지(부족현상)와 유가 상승에 따른 판매 감소세를 극복한다는 계획. 최대 1500달러까지 할인혜택을 적용키로 함.
<https://bit.ly/3JlmVfy>

부품부족으로 일본 9월 자동차 수출 40% 급감 (서울경제)

일본 9월 전체 수출액은 yoy 13% 증가한 6조 8,412억엔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yoy ~40% 감소한 5,863억 엔을 기록. 이 영향으로 수역시장인 미국에 대한 전체 수출액도 3.3% 감소. 일본 자동차업체 감산은 내달까지 이어질 전망.
<https://bit.ly/3nfDhAv>

아마존 인수' 죽스, 美 시애틀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THE GURU)

아마존이 인수한 미국 '죽스(Zoox)'가 자율주행차 테스트에 속도를 낸. 기존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에 이어 시애틀에 거점을 마련하고 시범 운행을 확대. 언덕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 지리·기후 특성 때문에 새로운 테스트 도시로 선택했다고 밝힘.
<https://bit.ly/3lXGzJf>

"파격적이고 신선"…美서 '올해의 SUV'로 뽑힌 한국 차 (한국경제)

제네시스는 SUV GV70(사진)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로부터 '올해의 SUV'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북미 올해의 차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상 중 하나. 후보에는 폭스바겐 ID.4, 기아 카니발 등이 이름을 올림
<https://bit.ly/3C2LkgG>

신차 부족에 중고차 '귀한 물'…가격도 급등 (THE Korea Times)

'아이씨카닷컴'(iSeeCars.com)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중고차 평균 가격은 전년에 비해 26.2%나 인상된 6,454 달러를 기록함. 만화임 중고차 가치 지수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204.8로 집계(10월 발표 수치는 221.8로 집계)
<https://bit.ly/3OB9eK>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품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 (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우선협상대상자(우회)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힘. 에디슨모터스는 세미시스코, TG투자와 성봉자 인수 이후 운영을 책임지고 키스톤PE와 KCGI는 재무적 투자자로 쌍용차 성장화를 계획.
<https://bit.ly/3nfDhAv>

바이두-벨트마이스터, 라이다 탑재 양산형 자율주행차 발표 (ZDNet Korea)

중국 바이두가 전기차 기업인 벨트마이스터와 두 개의 신차, 벨트마이스터의 'W6' 모델을 기반으로 라이다를 탑재해 만든 자율주행차 '아폴로문(Apollo Moon) 벨트마이스터 버전'을 공개. 바이두의 자율주행/자동주차 시스템이 탑재.
<https://bit.ly/3pkQeo>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